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200마리 눈앞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강원 화천 방문 대응 주문

현재 164마리… “확산 차단에 총력 기울여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멧돼지 차단을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강원 화천 지역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국내에서 발견된 ASF 양성 반응 아생멧돼지 개체수는 200마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화

천군을 찾아 아생멧돼지 이동차단 울타리와 폐사체 매몰지, 소독통제 초소 등 ASF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ASF 양성 반응이 검출된 아생멧돼지 수가 164마리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강원 화천 지역에

서 폐사체 발견과 양성 검출이 늘

고 있다.

조 장관은 먼저 민통선 내 화천읍 풍산리에 위치한 폐사체 매몰지점 6곳을 살폈다. 이를 매몰지는 지난달 8~16일 ASF 양성 멧돼지 폐사체를 묻은 곳이다.

생식회 도포, 경고안내판 부착 등 사후관리 현황도 확인했다.

그는 아생멧돼지가 목욕을 하는 공간이나 몸을 비비는 나무 등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도 빠짐없이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멧돼지들의 남하를 방지

하기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구간을 찾아 훤손 여부, 출입문 잠금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산천어 축제를 앞둔 시내 출입 차량·관광객 소독시설도 살펴봤다.

조 장관은 “화천 지역에서는 양성 개체가 광역울타리와 인접해 발생하고 있어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군부대와 협조해 폐사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울타리 관리와 현장 소독 등 바이러스 방역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에 항소

“형량 무겁고 심신미약” 주장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의 첫 항소심이 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5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43)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먼저 안인득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심문이 진행됐다. 연녹색의 수의를 입고 검은 뿔테안경을 쓴 채 범정에 출석한 안인득은 1심 재판에 비해 차분히 답변했다.

하지만 “진주시에 부정부폐 및 비리가 심각하고,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였다”며 형설수설은 여전했다.

이날 변호인은 “안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했다.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안인득은 “사건 당시 술도 마셨고, 10여년 동안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오해와 갈등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고 답했다.

안은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에 대해 열람신청을 했지만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족의 항소에 대해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깊이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변호인과 검사에게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보강을 주문했다.

항소심은 3월 4일 오후 속행할 예정이다.

● 단신 ●

마스크 10만개 도난 신고 해프닝…“배송착오”

인천 물류창고에서 접수된 마스크 10만개 도난 신고는 배송착오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배송착오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스크 도난 신고는 지난 1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중구 한 물류창고에서 한국 국적의 수출업자 A씨로부터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중국인 동업자에게 보낼 예정이었던 마스크가 없어졌다’며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배송 지역 및 품질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마스크가 없어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후 배송착오로 다른 물류창고에서 보관 중인 마스크 10만개를 확인했다.

완도 해상서 24톤 어선 불…6명 전원 구조

5일 오전 5시23분쯤 전남 완도군 여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완도항으로 이동하던 24톤 선박에서 불이 났다.

기관실에서 불이 나자 선원들이 소화기로 진화하려 했지만 잡히지 않아 완도해경에 신고했다.

완도해경은 경비함 고속단정을 이용, 불이 난 어선 선수에 모여 있던 6명을 모두 구조했다.

해경은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 요양원서 누전으로 불…20여명 긴급대피

5일 오전 5시58분쯤 광주 서구 한 요양원 1층 창고에서 누전으로 인한 불이 나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로 요양원 건물 2층에 입원해 있던 환자 12명과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 20명이 긴급대피했다.

불은 창고에 있던 의자 등과 창고 내부 100m²을 태워 소방서 추산 4369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현재 요양원은 시설 정비를 위해 모든 환자가 퇴소 조치돼 자택으로 귀가한 상태다.

당시 1층 창고에서 불이 나자 2층 요양원에 연기가 올라왔고 화재경보기가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것을 확인한 요양원 직원이 병동의 환자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은 창고 내부 천장등에서 불이 뛰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전서 좌회전 하던 SUV전복…운전자 경상

5일 오전 9시 34분께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SUV 차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에 탔고 있던 20대 후반 운전자 A씨(여)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 우사에 불…송아지 1마리 폐사

5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우사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다.

농장주 부인은 “이날 잡을 자던 중 뒤에서 개가 심하게 짖어 나가보니 우사 내부에서 불이 나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농장주 부부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자체진화에 나서 더 이상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구조의 우사 1동 중 일부(33m²)와 축산 자재 등 이타고 송아지 1마리가 폐사했다.

- ▣ 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 061)333-6832 FAX : 061)334-7701
광주사무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